

# 아산루

## Asanru

김형민 / 예명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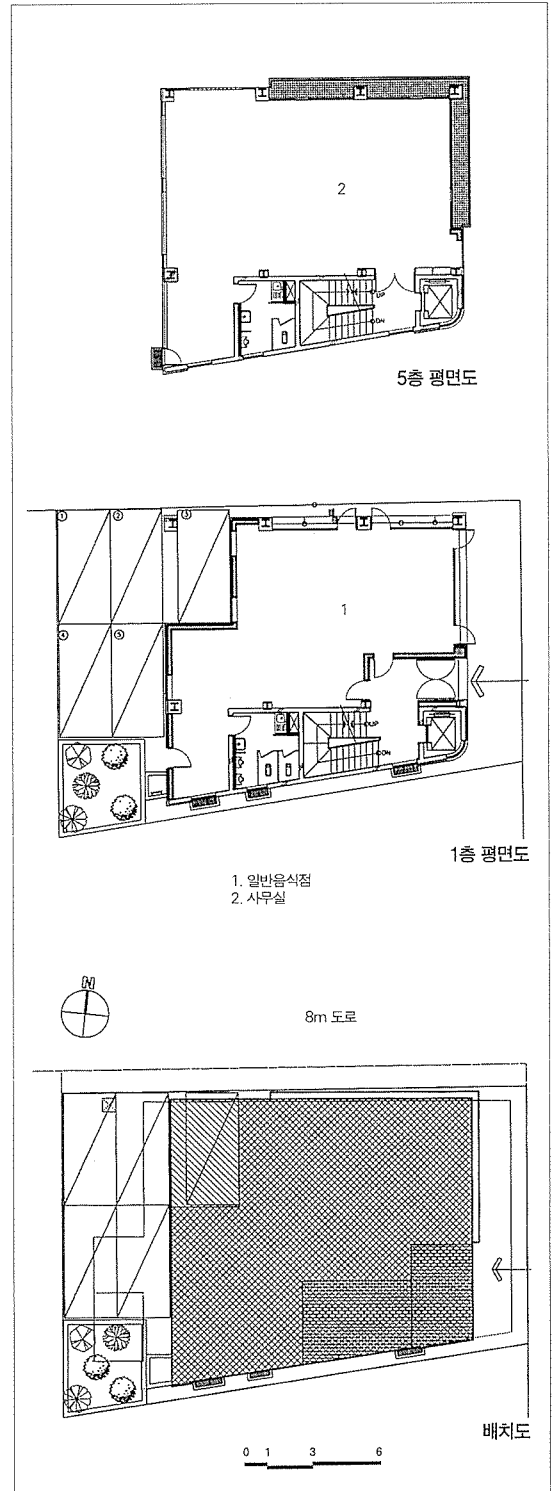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Hyung-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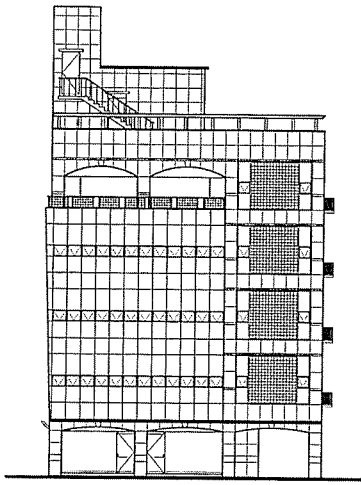
### 건축개요

|      |                                     |     |            |
|------|-------------------------------------|-----|------------|
| 대지위치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13-1                   |     |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5종)                    |     |            |
| 대지면적 | 264.7㎡                              |     |            |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            |
| 건축면적 | 157.41㎡                             | 연면적 | 943.37㎡    |
| 건폐율  | 59.46%                              | 용적률 | 285.76%    |
| 규모   | 지상1층, 지상5층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 외부마감 | 화강석 물갈기+질석 뿔칠, 컬러 및 파스텔 복층유리        |     |            |
| 내부마감 | 바닥: 후로아덕트+비닐계쉬트, 벽: 수성페인트, 천정: 아미텍스 |     |            |
| 설계기간 | 1997. 9~1998. 2                     |     |            |
| 공사기간 | 1998. 4~1999. 3                     |     |            |

아산루는 지역에서 오랜 세월 기술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주와의 만남과 자연스런 사옥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계가 의뢰되었고,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이 그렇듯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면적수용, 설계비를 포함한 최소의 시공비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디자인은 최상으로 비용은 최저로)를 진지하게 더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누구나 갖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표정한 건물이 아니라 건축언어를 보존하며, 내부공간이 자연과 호흡하고 거리의 표정을 담은 친근감 있는 건물형태는 무엇일까? 관청(아산 시청)건물과 아파트의 주거군, 몇몇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에는 덩그러니 표정의 주변환경에 안목의 도전을 주고 전도된 건축문화의 가치를 선도하고자 하는 소박한 기대를 가져왔다.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으로 나들이 오는 행렬과 외곽도로를 거쳐 예산과 수원으로 이동하는 객들과 부지 바로 앞에 있는 아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지역의 이정표로서 불거리를 제공하며 관입과 조화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간선도로에서 온양온천으로 접어드는 코너에는 2층에서 4층까지 경사진 커튼월로 처리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담는다. 5층 발코니와 지붕난간은 적색, 청색의 불소수지 도장으로 액센트를 주어 마무리하고 1층, 5층의 눈썹모양으로 연출된 창문과 그 양편에는 전면의 원형과 측면 박스형태 창으로 조화를 갖고자 하였으나 건축심의 때 안목높은(?) 어느 위원께서 전면 모두 박스 형태를 요구하여서 파격의 운치가 거세된 아픔이 곡선형 지붕모습에 서너마 달래지기를 기대한다. 한옥의 귀처마처럼 둘러진 현관출입구와 배면의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의 노란색 난간이 분위기의 생동감을 더해주며, 주변정리가 되지 않은 산만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모습을 찾고, 작품의 의도가 생명감 있게 드러나듯 아산시가 갖는 소규모 건물의 포스트사인으로 자리매김하며 행위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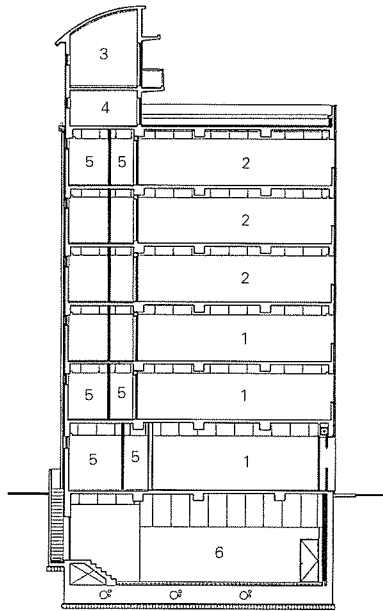




0 1 3 6

우측면도

- 1. 의원
- 2. 사무소
- 3. 기계실
- 4. 창고
- 5. 화장실
- 6. 휴게음식점



주단면도

